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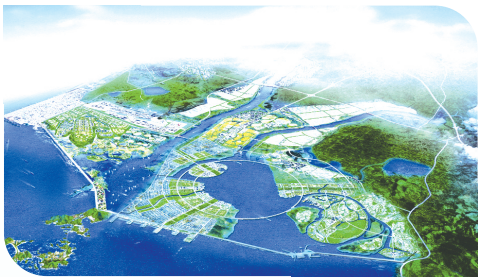
#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 군산건설

군산은 금강의 끝자락 북위 36도 선이 지나는 곳에 있으며, 군산은 우리나라의 포항과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칭따오, 일본의 요코하마와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동쪽으로 서수면, 서쪽으로는 아름다운 등대가 유명하고 해군이 주둔하고 있는 어청도, 남쪽으로 기러기가 날아간다는 이름을 가진 비안도, 북쪽으로는 나포면 원나포가 경계입니다.

또한 군산은 금강의 왼쪽 끝에 있는데 넓은 호남평야를 뒤에 두고 있으며 서해안의 중심적 항구로 익산시, 김제시, 부안군, 서천군, 보령군과 이웃하고 있으며 전주-익산-군산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도시의 서쪽은 바다 및 섬들이 있고 남쪽과 동쪽은 평야와 나지막한 군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산시 비응도, 신시도,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까지의 세계 최장 33.9km의 방조제를 형성하여, 바다를 메워 401km<sup>2</sup>(1억2천만평)의 국토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 외부시설과 내부개발이 완료되면, 고군산국제해양관광지개발, 비응도 관광 어항개발 등과 연계되어 군산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부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내항에서 64Km를 뱃길로 2시간 정도를 가면 유·무인도서 63개가 모인 수려한 경관이 나타나는데 그 중 선유도는 모든 섬의 중심으로 이름 그대로 신선이 유유자적 놀만한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다. 선유도와 무녀·장자·대장도는 아름다운 교량으로 연결되어 네군데 섬에서는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여 섬지역 특유의 모습과 섬 사람들의 생활상을 직접 느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장도에서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수천점의 수석과 분재를 감상할 수 있다.







군산시와 충청도를 가로잇는 금강하구둑은 약 2km 길이의 둑 위에 4차선의 도로가 놓여있고 배후에는 오성산과 함께 낮은 구릉으로 이루어진 계곡들이 펼쳐 있어 자연경관도 그만이며 희귀조 겨울철새 도래지로 장관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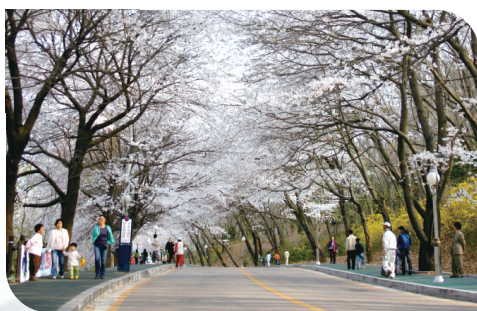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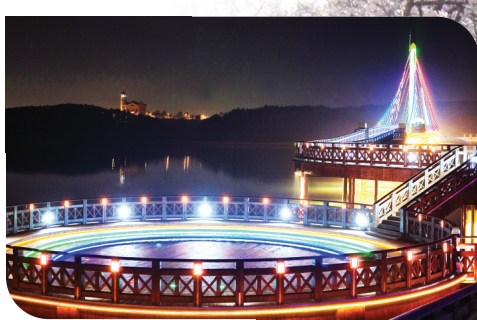
금강하구둑이 조수의 역류를 막으면서 먹이가 풍부해짐에 따라 금강하구는 새의 낙원이 되었다. 고니, 청둥오리, 도요새, 검은머리 물떼새 등 각종의 철새와 텃새가 날아와 서식하고 있으며 이들이 무리를 지어 비상하는 광경은 실로 장관을 이룬다.



전국 최초이자 국내 최고의 매머드급 360도 회전식 조망센터로 금강일대의 철새를 쉽고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 조망시설 외에도 조류공원과 철새신체탐험관, 부화체험장 등이 설치되어 있어 가족 단위 생태교육 장소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봄철이 되면 화사한 벚꽃길로 유명하여 친구, 가족, 연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아기바우, 중바우, 개바우에 대한 설화를 배경으로 형상화한 미관 교량이 오색 찬란한 음악분수와 함께 빼어난 야경을 연출하여 찾는 이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월명공원은 군산시 중심에 위치한 곳으로 시민의 안식처이자 관광지로서, 4월의 월명공원은 분홍색 진달래와 노란색의 개나리, 눈꽃같은 벚꽃 그리고 붉은 동백꽃이 다투어 피고, 5월에는 분홍색 왕벚꽃과 철쭉꽃이 흐드러지게 피며, 6월에 아카시아 향이 온 산에 퍼지면서 여름이 된다.





## 제16회 군산통계연보 2010

---

발 행 : 군산시장  
편 집 :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군산시 시청로 17번(조촌동 888)  
          우편번호 573-703  
전 화 : (063) 450-6148  
F A X : (063) 450-6391  
인쇄일 : 2010년 12월  
발행일 : 2010년 12월  
인쇄처 : 정명인쇄사(063-443-1122~4)

---

통계청 승인간행물 214-02-11 비매품